# 법원 "로스쿨 선정 과정 적법"

## 조선대 예비인가 무효 소송 패소…항소하지 않을 듯

조선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탈락과 관련한 법적 조치가 무위로 돌아갔다. 정부의 로스쿨 선정과정이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0일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지만 소속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아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외국어 강좌 개설 및 여성교수 비율 등 조선대가 문제를 삼고 있는 심사기준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 포함됐고 객관적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간 균형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발하는 원칙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는 원칙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적용돼야 한다"며 "제주는 육지와 생활권이 다른 데다 상대적으로 낙후됐기 때문에 제주대가 예비인가를 받은 것이나 전북지역에 전남보다 많은 학생이 배정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광주권 4개 대학이 예비인가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조선대가 별도로 낸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조선대 등 로스쿨 탈락 대학들이 낸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조선대가 예비인가 심의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신청한 심사서류 증거보전도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부는 현재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9월 초까지는 본인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조선대는 이날 재판 결과에 앞서 제기한 법적 조치가 조선대에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더 있을 수 있는 총 정원 증원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항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며 "현재 국회에서 총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로스쿨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 판을 짜는 형태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는 최근 '로스쿨 추진기획단'을 꾸리고 여교수 충원, 사법고시 출신자 확대 등 지난 예비인가 탈락의 주요인이었던 평가기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연합뉴스

## 전남대·조선대·목포대 입학사정관제 운영

▲입학사정관=대학 내 다른 행정기관과 독립된 보직으로 전형기관과 무관하게 연중 입학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이들은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 유치에 나서게 된다.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에서 새로 입학사정관제가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등 전국 40개 대학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선정돼 3년간 지원금을 받는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 확대로 전임 입학사정관수는 현재 40여명에서 200여명으로 늘고, 이들에 의한 학생 선발인원도 300여명에서 3천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대는 국고와 교비 2억6천만원을 투입, 5명의 입학사정관을 채용, 2009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입학사정관제가 적용되는 특별전형을 통해 ▲자기추천자(70명)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30명) ▲만학도·주부(20명) ▲취업경력자(60명) 등이며 모두 19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남대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2학기 때 고교 진학상담 경험이 있는 전·현직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3명을 신규 채용한 뒤 입학사정팀 등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목포대는 입학사정관 2명을 신규 채용하고, 전문위원 6명을 위촉해 운영할 방침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해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특기자 전형 등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게 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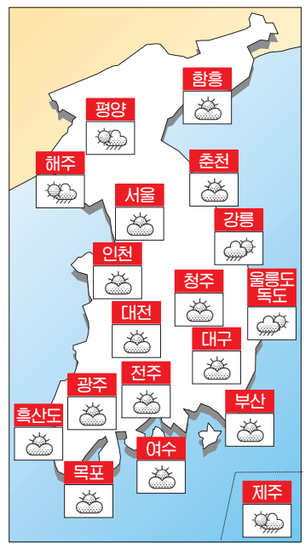
## 스멀스멀 비구름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전남 해안지방에 비오는 곳이 있겠다.

8월 21일 (음 7월 21일) 날씨

◇전국날씨

| | | |
|---|---|---|
| 광 주 | 구름 많음 | 20~31℃ |
| 목 포 | 밤 늦게 비 조금 | 21~29℃ |
| 여 수 | 구름 많음 | 22~29℃ |
| 완 도 | 밤 늦게 비 조금 | 21~30℃ |
| 구 례 | 구름 많음 | 18~31℃ |
| 해 남 | 밤 늦게 비 조금 | 20~30℃ |
| 장 흥 | 밤 늦게 비 조금 | 19~30℃ |
| 고 흥 | 구름 많음 | 20~30℃ |
| 순 천 | 구름 많음 | 18~31℃ |
| 영 광 | 구름 많음 | 19~30℃ |
| 진 도 | 구름 많음 | 20~31℃ |
| 전 주 | 구름 많음 | 20~31℃ |
| 남 원 | 구름 많음 | 18~31℃ |
| 흑산도 | 밤 늦게 비 조금 | 21~27℃ |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0.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0.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4:50 17:20 썰물〈 09:59 22:21
여 수 밀물〈 11:47 23:50 썰물〈 05:21 17:38

▲해뜸 05:57 ▲해짐 19:14 ▲달뜸 21:20 ▲달짐 10:1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22(금) | 23(토) | 24(일) | 25(월) | 26(화) | 27(수)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23/27 | 23/29 | 22/30 | 22/30 | 22/30 | 23/30 |

**자전거 탑시다**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는 20일 오후 청사 주차장에서 에너지 절약과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자전거 시승행사를 갖고 금남로 일대에서 거리 퍼레이드를 펼쳤다. /고경석기자 ksgo@

## '자치경찰제' 빠르면 내년 7월 시행

기초자치단체에 교통이나 방범 분야의 기초적인 치안유지 권한을 인정하는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의 치안 등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정부는 2005년 11월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양업무의 범위와 실시단위 등을 둘러싼 정당 간 이견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해 지난 5월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행안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이전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기존의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와 별도로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대를 신설, 교통과 방범 등 기초 치안에 국한한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시행해 지방경찰청 이하 국가경찰의 인사.예산권 등을 시·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행안부에 전달하는 등 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김윤수 전남대 신임 총장이 20일 오전 전남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앞서 연단으로 오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 일부 경찰 지구대, 파출소로 전환

전남 일부 농촌지역의 경찰 지구대가 파출소로 전환된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0일 농촌 지역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7개 지구대를 해체해 16개 파출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출소로 전환되는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출동거리가 멀어 신고 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흥 포두 ▲해남 북평·송지 ▲장성 남면 ▲영광 군남·염산 ▲함평 학교 등이며, 산업단지 입주 등으로 치안여건이 바뀐 ▲해남 황산·문내·화원 ▲영광 홍농·법성 등이다. 또한, 도서 지역으로 주민협력 치안이 요구되는 진도군 읍내·임회·고군·의신 등도 파출소로 전환키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

## "여성시위자 속옷 탈의 강요 또 있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경찰이 광복절 촛불시위에서 연행한 여성시위자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민변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고모(27)씨 등 5명의 여성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위험물로 분류해 이를 벗도록 한 뒤 따로 보관했다. 민변 관계자는 "여성연행자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경찰 옷에 부착 채증 장비 도입 검토

### 사생활 침해 우려

경찰이 옷에 부착하는 동영상 채증장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오리발 내밀기'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장비는 미국 EHS사에서 개발한 'VIDMIC' 제품으로 어깨나 옷깃에 부착해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소형 촬영장비다. 경찰청은 수입이 확정될 경우 우선 소량으로 들여와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관서를 골라 시범 운용을 해본 뒤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될 예정이라 분명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장비의 최종 도입 여부는 예산 문제와 더불어 시민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연합뉴스

## 전남대 김윤수 총장 취임

김윤수(59) 전남대학교 제18대 총장 취임식이 20일 전남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장, 동문, 교직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남대가 지역사회에 다시 희망과 감동을 주고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학이 되도록 구성원들의 의지와 지역민의 격려를 안고 앞으로 4년 동안 이끌어가겠다"며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받아들이고 항상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전남대가 ▲국립거점대학이라는 명성과 허상 속에서 안주하고 안일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학교를 에워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반 여건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으며 ▲대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인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 처방보다는 이해와 양해를 우선시하는, 소통이 원활한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